

다향오리, 훈제오리 · 밥엔덕 등 선보여 ... 간편조리식 · 1인용 소포장 발빠른 대응



국내 전통 보양식으로 각광 받은 오리가 최근 백숙, 훈제구이 등 기존의 한정적이었던 보양식 메뉴를 탈피해 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간풍육, 주먹밥 등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며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간편조리식, 1인용 소포장

등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다.

3월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다향오리가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향오리는 GS25편의점과 함께 간편조리식 ‘오늘은 훈제오리’와 ‘오늘은 오리스테이크’를 판매하고 있다. 100% 국내산 오리로 만든 이 제품들은 두툽한 고기와 촉촉한 육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레인지에 단 2분만 돌리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다향오리는 밥에 돌돌 말아 간단히 싸먹는 ‘밥엔덕’,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기는 영양 간식 ‘나는 오리 육포다’도 선보이고 있다. 두 제품 모두 1인용 소포장으로 선보여 더욱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기 좋다.

GS25는 ‘식객 훈제오리 주먹밥’을 판매한다. 야채와 훈제오리를 함께 볶아 밥 안에 듬뿍 넣은 것으로 한 끼 식사로 가볍게 즐기기 좋다. 이마트의 간편 가정식 브랜드 피코크에서는 ‘오리불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간편한 조리로 훌륭한 한 끼 영양식을 즐길 수 있어 싱글족,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홈플러스는 간편조리식 ‘간풍오리강정’을 판매 중이다. 점포에서 직접 조리해 온 ·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프라이드와 양념 두 가지 종류로 선보이며,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특징이다.

다향오리 담당자는 “오리 고기가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 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소비 트렌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업계 자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2016. 03. 07]

다향오리, '2016 멕시코 식품박람회' 참가

다향오리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16 멕시코 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멕시코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박람회다. 멕시코 및 중남미의 주요 외식, 식품 관련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꼽힌다. 금년에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45개국 약 2,400개 업체가 참가했다.

다향오리는 박람회장 내 한국관 부스에서 다향오리 대표 제품인 훈제슬라이스, 다향진삼계탕, 다향반계탕 등을 전시하고 훈제슬라이스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적극 교류를 통해 수출 상담과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갔다.

박은희 다향오리 기획실 상무는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의 한국 식품 수출 시장이자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큰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발판 삼아 중남미 시장 개척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2016. 03. 16]

주원산오리, 국내산 재료 사용한 오리죽 신제품 2종 출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늙는 웰에이징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증명하듯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인 레토르트 식품

을 선택할 때도 편의성이나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식품 업계에서도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재료 사용, MSG 사용 지양, 조리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 역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간편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 오리죽 2종을 출시했다.

(주)주원산오리가 선보인 오리진(진) 표고버섯죽, 오리진(진) 인삼죽은 진한 오리뼈 육수, 국내산 오리안심, 국내산 유기농 찹쌀과 맵쌀, 국내산 채소 등을 사용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MSG)를 첨가하지 않은 건강식이다. 오리진 표고버섯죽은 국내산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을 사용했으며, 오리진 인삼죽에는 국내산 수삼을 원료로 했다.

영양과 건강을 고려해 만든 신제품 2종은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1분 30초에서 2분간 데우거나, 끓는 물에 봉지 그대로 넣고 3~5분간 데운 후 섭취가 가능한 간편식이다. 바쁜 직장인, 예민한 수험생, 영양 공급이 필요한 노년층,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식사대용으로 손색없다.

훈제오리슬라이스 흡소핑 론칭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오리의 대중화에 일조한 (주)주원산오리가 신제품 출시로, 레토르트 식품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 [2016. 03. 07]

(주)팜스코, 2016 팜스코 1차 양계스쿨 개최



(주)팜스코 양계팀은 지난 3월 9일 안성 중부공장에서 '2016년 팜스코 1차 양계스쿨'을 개최했다.

팜스코는 2020년 새로운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영업조직의 역량 개발에 집중한다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양계스쿨과 같은 양질의 축종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정학상 대표이사, 권천년 사료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축산과학연구소, 각 영업본부 지역부장 등 팜스코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손태웅 수의사는 '최근 양계 관련 질병 동향'에 대해 강의했고, 이창도 양계 PM은 닭의 생리, 육성기 사양관리와 체중관리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이어 팜스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란계 사육일지와 산란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난각형성과 난각질, 육계/오리 사양관리, 토종닭 사양관리에 대해 각 본부 지역부장, ISM들이 교육을 진행했다.